經營學硏究 第24卷 2號(1995年 5月)

現代社會에 있어서 會計役割의 增大

정 기 숙*

논문접수일 : 93. 10
게재확정일 : 95. 2

초 록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회계의 사회적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회계는 기업의 이익과 재산계산의 수단으로만 인식됨으로써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 경시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 특히, 부패구조에서 비롯되는 갈등, 노사갈등, 조세상의 갈등 등을 해결함에 있어 서 회계적 처방이 경시 내지 무시되고 있음은 부정직한 회계기록에 연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성실기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성실기장은 단순한 기장기술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에토스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성실기장문제는 우리 나라 사회관련회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첫 번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세법, 그리고 각종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 등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I. 序 論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會計의 사회적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에 따라 기업내외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회계는 기업의 이익과 재산 계산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에 상응한 회계의 사회적 역할은 기업내외에서 표출되는 갈등해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을 둘러싼 갈등의 종류와 양상은 다양하나,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패구조에서 나타나는 갈등, 노사갈등, 조세상의 갈등 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 해소에 회계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역할이 경시 내지 무시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과 재산이 정확히 측정되고 보고되는 歐·美·日 선진국에서 회계가 사회 갈등 해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회계가 갈등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회계정보의 산출이다. 부정확한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또는 이중장부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산출된 회계정보는 갈등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부정확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사회는 갈등해소를 위한 회계적 수단외의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나, 이러한 방책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아마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 우리사회는 정확한 회계정보를 산출하지 못하는가? 정확한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이 본 논문을 쓰게 된 중요한 동기이다. 본 논문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여기서 제시된 방책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정확한 회계정보의 산출은 誠實記帳에 있다고 보고, 성실기장에 이르는 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하였다. 회계의 사회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회계학의 발전단계가 會計의 社會化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계학의 발전단계를 살펴 본다. 會計人 뿐만 아니라 非會計人도 會計의 尊嚴性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계의 존엄성에 대해 논하고, 회계의 사회화의 영역인 社會關聯會計를 고찰하여 본 후, 社會正義實現의 최상의 수단이 성실기장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Ⅱ. 會計의 社會的 役割의 必然性

會計는 言語와 法律과 같이 하나의 사회제도이다(AICPA, p. 13, 김선정, p. 21). 회계는 본질적으로 사회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사회적 역할을 회계의 副次的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계의 주목적이 본래 기업의 이익과 재산의 계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회계적 측정의 주요 대상인 기업이익과 기업재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私企業의 이익추구는 때때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등한시하고, 회계가 단지 私企業의 자의적인 手段으로 남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Littleton은 이러한 현상을 기업의 "非社會的 個人主義(中央大學, pp. 2-3)"라고 달하고, 어떤 기업의 비사회적 성격을 기업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결여되었을 때는 社會力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下部構造로 발전되면서, 기업은 더이상 소유주의 사적이익증대의 도구로만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Luca Paciolo(Brown & Johnston, p. viii)가 처음 회계라는 社會制度를 活字化한 이래 회계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나, 회계와 사회와의 관계는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회계의 역할 또는 회계의 사회적 역할의 강도가 달라져 왔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 사회구조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생각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양립하고 있는데, 기업의 긍정적인 면의 추구가 필연적으로 기업의 부정적인 면을 수반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으나, 이 부정적인 면이 극복될 수 없다고 체념한다든지, 또는 이 부정적인 면이 기업의 성장에 내재해 있다고 체념하면서 치유하지 않고 주어진 현상이라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강조는 기업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의 성취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Littleton이 말하는 "會計의 社會化"(中央大學, p. 3)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회계의 사회화"는 역시 회계의 사회적 역할을 축약한 말이다.

기업의 부정적인 면은 時空間을 초월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그 내용의 양과 질이 같을 수 없

으나, 비슷한 사회 또는 경제발전단계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부정적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현상에서 기업의 부정적인 면이 무엇이고, 그 부정적인 면들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연구하려는 태도가 反企業的 사고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첨언해 둔다.

우리 나라에서 "회계의 사회화"에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의 기초자료가 성실하게 기록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 즉 이중장부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없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는 반드시 사회질서에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Luca Paciolo는 기독교정신으로 장부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은 모든 帳簿의 맨앞에 十字架를 표시한다고 하였고, "福澤諭吉은 記帳이 企業倫理의 기초이고, 그것이 바로 國民精神이라는 思想을 일깨웠다"고 말하고 있다(黑澤淸, p. 4).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公式的으로 발표된 회계자료는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稅務署에 제출하는 決算書類나 上場會社가 證券去來委員會에 제출하는 각종 會計報告書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인은 誠實記帳을 할려고 하여도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회적 환경이라고 한다. 아마 이러한 현상이 "韓國病"의 근원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종교계의 지도자, 정치지도자, 유수의 지식인 중에서 어느 한사람도 이 문제를 "한국병"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일본 開化期의 정신적 지도자인 福澤諭吉이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해 사상관계 저서들을 집필하고, 그의 사상전개를 위한 수단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帳合之法」이라는 簿記教材를 저술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번 음미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誠實記帳"을 하잘것 없는 사소한 기술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회나 국민은 모든 경제생활의 밑뿌리부터 假飾으로 가득찬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경제활동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社會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회계의 사회화의 첫단계는 성실기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회계의 사회화의 초점은 요즈음 회계학의 새로운 장르로 등장하고 있는 "社會關聯會計"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 시각을 달리한다는 것은 성실기장이 사회관련회계를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歐·日·美에서는 성실기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관련 회계분야에서의 논의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성실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실기장이 사회관련회계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Ⅲ. 會計學發展의 3段階

회계는 언어나 법률과 같이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회계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회계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회계는 사회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고 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회계와 사회적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인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학의 역사도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회계와 사회의 관계를 관찰해 보기 위해서는 회계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고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Littleton교수에 의해 주장되고 黑澤淸교수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회계의 역사적 발전단계는 다음의 3단계로 구별되고 있다(黑澤淸 編, pp. 4~8).[1]

제1단계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지는데, 전기는 15세기 이전의 시기로서 회계자료를 기록하는 技法과 機構로서 簿記(複式簿記이전)技術이 개발되는 시대이고, 후기는 15세기 내지 16세기 이후의 시기로서 경제정세의 발전변화에 따라 複式簿記가 완성되는 시대이다.

복식부기의 정확한 역사적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복식기록법(計定)의 최초의 흔적은 옛 로마의 현금계정 방식의 영향받았다고 생각되는 左右對照記入方法을 취하고 있는 中世 금융업자의 장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현금계정의 대조기입법(수입은 좌측, 지출은 우측에 대조적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기업자본제도의 발전에 따라 현금계정이외의 제계정에도 파급되게 된다. 이리하여 재산계정과 자본계정을 대조적으로 기입하는 복식부기라고 부르는 企業計算制度가 생성되게 된다. 복식부기에 관한 최초의 문헌은 수학자 Luca Paciolo가 1494년 베니스에서 출판한「算術·幾何·比 및 比例總覽」이다. 이 總覽의 마지막 一章에 揭記된 簿記編은 베니스상인들 사이에 상사관행으로 보급되어 있는 복식부기를 해설한 것이다. 이 복식부기는 Goethe가 말하였듯이 인간의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의 하나이고, 그 원리는 Euclid의 比의 原理에 겨룰 수 있는 절대적인 완전원리라고 높이 평가받고 있다(尹根鎬, p. 3).

---

1) A. C. Littleton은 Eric Louis Kohler, G. O. May 및 William A. Paton과 더불어 20世紀 제1·4半期에서 제3·4半期의 前半에 美國會計學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이고, 黑澤淸은 Littleton과 비슷한 시대에 일본 會計學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이다.

회계의 역사적 발전의 제 2단계는 회계이론의 맹아시대이다. Littleton의 해석에 의하면, 회계이론은 처음 복식부기교사에 의해 개발된다. 복식부기와 같은 유용한 사회적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부기교사들이 경험한 공통의 고민은 장부에 거래를 기입하기 위한 규칙을 기계적으로 암기시키는 전래의 학습방법의 결점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것이었다. 다수의 부기교사들이 도달한 결론은 부기라는 기법의 근저에는 명확한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기의 고유한 논리를 도출하여 새로운 학습방법을 고안하게 되고, 이것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최초의 맹아적인 회계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17, 8세기 이후 株式會社의 대두는 복식부기의 보급과 회계이론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Littleton은 그의 저서「會計發達史」에서 많은 문헌적 고증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18,9세기 산업혁명시대에 회계학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소위 종래의 재무회계제도에서 원가계산제도가 分岐하게 된다. 원가계산제도의 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일환인 장래 회계정보의 예측, 기업예산제도 등을 다수의 회사에서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채택으로 부기의 기술적 범위를 초월하여 회계이론이 전개되고, 회계의 영역도 대폭적으로 확대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 1단계에서 제 2단계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회계이론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기업의 회계는 주로 기업에만 서비스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지만 점차로 회계는 기업자체에 서비스함과 동시에 사회일반에게도 서비스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이미 회계의 본질로서 발전하게 된다.

회계학발전의 제 2단계에서 제 3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Littlet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업의「非社會的 個人主義(unsocial individualism)」를 통제관리하기 위해 회계 그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하면서 회계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게 된다."

기업유지의 원칙과 자본유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는 출자자와 채권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경제제도의 가장 중요제도로 보는 사회제도도 출자자와 채권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Littleton은 회계를 통하여 기업의 비사회적 개인주의를 통제관리하려는 가장 좋은 예는 英國會社法중의 會計와 監査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회사법은 企業經理自由原則을 방침으로 정하면서 자본평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규정하지 않고, 移延資産, 充當金, 資本剩餘金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限定的인 규정도 하지 않는다. 단지 회계에 관한 포괄규정으로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에 관한 眞實한 公正表示 (또는 眞實公正의 槪

觀)의 原則, 正規簿記의 諸原則(정확한 會計帳簿保有의 原則),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구분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 기업경리자유의 원칙을 들고 있지만 재무제표에 있어서 자산평가에 관한 공시원칙을 명문화하였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사적 기업 경리의 恣意性을 통제관리할 목적으로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商法에 도입한 점이다.

회사법에서 회계에 관한 限定的 規定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公認會計士가 감사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 이 會社法에 보통법原理(common law doctrine)로 도입되어 法的 效果를 가지게 된다.

Littleton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다수의 주가 靑空法 (blue sky law)이라는 州法을 제정하여 株式과 社債의 불공정한 발행을 감시하고 자본거래의 건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청공법만으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어서 證券法을 聯邦法制로 제정하게 된다.

Littleton은 사기업의 통제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黑澤淸 編, p. 8). "기업은 그 행동의 사회적 측면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자기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렇치 않게 되면 정부가 기업에 대해 강한 통제를 가하게 될 것이다."

회계학발전의 제 3단계는 회계의 보편화와 광범한 회계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하여 「會計의 社會化」(the socialization of accounting)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 Littleton의 결론이다. 여기서 소위 Littleton의 「社會化」라는 개념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會計의 社會化」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위 「體制의 變革」이라든가, 社會主義政策의 도입이라는 政治的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會計의 社會的 役割의 중요성 증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會計의 尊嚴性

4.1. 루카 파치오로의 思想

4.1.1. 루카 파치오로에 대한 일반적 고찰

회계는 상당한 기간동안 학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장기술이라는 견해가 있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회계전문가 이외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정치가, 관료, 종교인 등 많은 비회계인들이 회계를 아직도 하나의 기장기술로만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社會正義實現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회계 또는 회계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Littleton은 "회계를 하나의 학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尊嚴性이 없다는 편견이 있어 왔다"고 말하면서, 회계는 점복술이나 안마술 등과 같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회계는 역시 학문적존엄성이 없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하나의 知的 領域이 학문으로서의 존엄성을 주장할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의 자격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Littleton, p3. , 片野一郎, p. 3). 제1조건은 學問으로서의 家門 또는 血統이 있어야 하고, 제2조건은 타학문과의 교섭이 있어야 하며, 제3조건은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계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古代會計를 논외로 하면, 우리들은 근대회계의 아버지는 프란시스코파 修道僧이고 數學者인 Luca Paciolo[2]를 들고 있다. 1494년에 출판된 그의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算術, 幾何, 比 및 比例總覽)」은 대수에 관한 최

2) Luca Paciolo의 철자법에 대한 Brown 과 Johnston의 견해를 살펴 보자. 독자들은 Paciolo 보다 Pacioli라는 철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의 이름의 정확한 철자법은 논쟁의 대상인데 Taylor는 Accounting Review 1944년 1월호 176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라틴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사람은 Lucas Paciolus라고 쓰고, 이태리어 단수로 사용하면 Paciolo가 정확한 철자법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실무와 상용어를 따르는 사람은 Pacioli라는 철자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철자법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해결될 수 없는 해묵은 논쟁거리이다. 나의 선택은 'Pacioli'이나, 다른 철자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Accounting Review 69쪽에서 같은 문제를 다룬 Roymond de Roover교수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동의하나, 이 논쟁에서는 자유롭고 쉽다. "증거에 의해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Paciolo'또는 'Pacioli'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편의상 'Pacioli'보다는 'Paciolo'라는 통일된 철자법을 사용하는 것이 혼난을 피하고 학자들간에 동의를 얻는데 바람직할 것 같다."

초의 인쇄문헌일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Particularis de Computis et Scripturis(計算 및 記錄詳論)」이란 제목으로 부기에 관한 長論의 一章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기에 관한 세계 最古의 저서이다. Paciolo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편이나, 그의 학자로의 경력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위대한 수학자는 아닐지 모르나 우수한 수학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는 처음 Perugia대학에서 강의한 이래 나포리, 피사, 프로렌스, 보로냐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1514년에 로마교왕 레오10세로부터 로마에 있는 Sapienza대학(기독교 제국의 대학 중 최고의 지위에 있는 대학)의 수학교수로 임명되었다.

Paciolo의 대학경력은 1496년에 중단되고, 그해에 미라노大公 Ludovico il Moro의 宮邸에 초대되는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당시 Moro公邸는 학문 문화의 중심이었다.

미라노에서 Paciolo는 다수의 유명 인사들과 교류하게 되는데, 특히 당시 최고 예술가인 Leonard da Vinci와 친교를 맺게 된다. Paciolo의 Summa가 출판되었을 때 Leonard는 그것을 사겠다고 말하였다. Leonard는 그 후 Paciolo와 합작으로 Divina Proportione(金의 截面)을 출판하였다. Paciolo는 본문을 쓰고 Leonard는 삽화를 그렸다.

Jennings[3]는 Brown과 Johnston의 저서 Paciolo on Accounting 에 관한 소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Paciolo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5세기 전에 실용성이 없는 이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우리 중에서 누가 무시할 수 있는가, 진실은 건전한 會計 또는 計定시스템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인물을 우리 중에서 누가 무시할 수 있는가, 글자나 기호가 신용의 유일한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가, 內部統制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二重으로 장부를 만드는 사람을 경고한 사람은 우리 중에서 누가 무시할 수 있는가, 監査를 지지하고 政府機關의 거래에서 함정을 경고한 사람을 우리 중에서 누구 무시할 수 있는가."

Paciolo는 종교적이었으나 프란시스코파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았으며, 그는 학자이나 새로운 이론의 발전이나 개발보다는 주로 편집자와 번역자의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파치오로는 이론은 중요하나 실용성이 없으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15세기경 대부분의 저서는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학자들만 활용할 수 있었다. Paciolo는 라틴어로 된 저서들을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말로 저술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에게 지식을 전달

3) Alvin R. Jennings는 美國 CPA會社 8大會社 중의 하나인 Lybrand, Ross Bros & Montgomery의 代表이다.

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는 수학적인 개념과 기법을 기업계에 적용하였고, 그리고 이것들을 방언으로 번역하여 그 당시의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4.1.2. Particularis de Computis et Seripturis에 나타난 파치오로 思考의 基本

이제 Paciolo's Treatise on Bookeeping(Particularis de Computis et Scripturis)[4]의 第1章, 第4章, 第6章, 第7章 및 第35章에 나타난 Paciolo의 사고의 기본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Paciolo는 제1장에 "성공적인 기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베니스나 여타 지역에서 元帳과 分介帳을 적절하게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題目을 붙이고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또는 等價의 경제력이다. 이것들 없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필요한 것은 실물(Substance)이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태리의 대부분의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용을 얻게 되면 부를 얻게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에 誠實性의 신념을 나타내는 뜻에서 "善良한 企業人의 이름으로"라는 선서를 하였다. 모든 사람은 신뢰에 의해 진실로 구제되고, 신뢰없이는 하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둘째, 사업에 필요한 것은 양호한 會計人과 數學者이다.

셋째, 기업인이 그들의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사업이 잘 서술되기 위해서는 借邊과 貸邊이라는 기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기록이 없으면 기업인은 그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마음이 항상 피로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록은 기업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다양한 거래의 기록방법을 나타내기 위해 이 글(treatise)에서 차례 차례로 정리하였다. 반드시

4) Particularis de Computis et Scripturis는 파치오로의 저서 산술 기하 비 및 비례총람 중에서 簿記에 대해 서술한 章의 제목인데, 片野一郎은 이것을 "계산 및 기록詳論"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Brown과 Johnston은 Paciolo's Treatise on Bookeeping으로 英譯하고 있다. R. Gene Brown and Kenneth S. Johnston, Paciolo on Accounting, McGraw-Hill, 1963.

서술하여야 하는 주제에 대해 모든 것을 서술하지 않았으나, 주의깊은 독자는 각자의 특수상황에 대해 응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하였다.

제2장의 課目은 "이 글(treatise)의 첫부문은 재고자산인데, 기업인은 재고자산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이다. 기업인은 어떤 목표를 위해 일을 하여야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기업인의 목적은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만족스러운 이윤을 창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업인은 마음속에 신성한 신의 이름을 항상 간직하고 모든 장부의 초두에서 '신의 이름으로'라는 기록으로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제 2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4장의 題目은 "성공적인 기업인에 대한 충고와 경고"이다. 모든 개인재산과 부동산을 항목마다(萬가지가 있을지라도)그들의 상태와 성질, 또는 그것들이 대여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주의있게 기록하여야 한다. 모든 항목들의 재고자산에 대해 계산표시와 명칭 등 가능한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방대한 숫자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거래들이 기업인들에게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률가가 되는데 요구되는 것보다 성공적인 기업인이 되는데는 더욱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格言은 옳다고 할 수 있다. "法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市民法(municipal law)은 말하고 있다.

Dante의 神曲 제1부 지옥편(Interno) 24에서 그의 아들에게, '美德을 쌓는 유일한 수단은 일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나의 아들아, 보들보들한 틀옷속에서나 이불속에 누워 있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나태한 버릇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공기속의 연기나 물속의 거품과 같이 지구위에 아무런 흔적을 남길 수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이태리 詩人은 "軍神(Mars)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며, 일은 당신들에게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충고하고 있다.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의 현명함을 예로 들기도 한다. 使徒 Paul과 Apostle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왕관을 쓸 수 없다고 설교하고 있다. "慈善에 의해 富를 잃지 않고, 宗教的인 명상에 의해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聖句를 매일 아침 명상시간에 잊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6장에서 "훌륭한 기업인은 그의 참모들을 태만하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장부인 備忘帳, 分介帳 및 元帳에 十字架表示를 하였다.

제7장에서 "장부들은 주의스럽게 표시와 認證하여 집에 보관하고, 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기

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35장은 題目이 "상세한 기록의 보관하는 방법…"으로 되어있는 것과 같이 서류의 보관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부기가 체계적인 기록 못지 않게 보관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Paciolo의 글(treatise)이 우리들에 주는 교훈은 簿記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簿記에 대한 서술 못지 않게 기업인의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기업인의 윤리적면이 부기라고 하는 체계적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현대인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측면이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Paciolo가 修道僧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 이태리의 주종인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행동규범으로 기독교적인 행동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기 또는 회계의 기본인 기록 또는 체계적인 기장은 모든 기업인의 윤리성 또는 도덕성의 함양에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Luca Paciolo의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다. 이와 같은 사고 또는 사상은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나라의 기업인 또는 국민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道德心 앙양, 社會正義具現을 위한 정책의 수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낭만주의 시인인 Scott는 회계업무의 존엄성을 찬양하였고, 세계적 천재인 Goethe는 복식부기는 인지가 낳은 최대의 發明이라고 하였으며, 위대한 과학자 Cayley는 "簿記는 두개의 完全科學 중의 하나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Littleton, p. 11., 片野一郎, p. 21.). 스코트, 괴테, 케이리의 주장들이 허풍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없이 믿어야 한다.

4.2 福澤諭吉의 實事求是 會計

4.2.1 福澤諭吉에 대한 일반적 고찰

福澤諭吉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金俊燁선생의 "長征"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옮긴다(김준엽, pp. 47-48).

"나는 동양사 중에서도 최근세에 가장 깊은 관심과 흥미를 느끼며 공부하였다. 어찌하다가

우리 나라는 망했으며, 阿片전쟁 이후로 강대국인 중국은 몰락 일로인데 반하여 3국중에 가장 뒤떨어졌던 일본이 明治維新을 겪고난 다음에 오늘날 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무슨 이유로 일본은 근대화하는데 성공했는가? 이와 연결되어 서양세력이 동양을 압도하게 되었으며, 근대화에 있어서 앞서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도탄에 빠진 조국이라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을 찾아내려는 나의 절실한 소망에서 일어난 관심이었다. 이런 공부를 깊이하면 할 수록 안타까운 우리 조상들의 못난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왔으며, 간악하게도 야만적인 왜놈의 침략행위에 치가 떨리는 것이었다.

내가 慶應대학에서 학문 이외에 배운 것이 있다면 창설자 福澤諭吉의 생애에서 얻은 감명이다. 福澤은 1835년생으로 1860년 이후 3회에 걸쳐 德川寞府의 외유사절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西洋事情(1866년)〉, 〈學問의 勤誘,(學問のすすめ, 1872년〉, 〈文明論의 概略(1875년)〉 등 이른바 福澤 삼부작을 저술하여 당시 일본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는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로서 慶應대학도 설립했고, 明六社(月刊雜誌社)를 창설한 뒤로는 동인으로서 日本의 자유민권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는 또한 명치유신 이후 새 정부의 초빙을 받았으나 끝내 사양하고 학문연구와 제자양성, 그리고 언론활동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현대 일본 건설에 있어서 정계나 재계, 그리고 군부의 누구보다도 큰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고 있다(오늘날 일본 근대화에서 福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여 일본지폐 1만원권에는 그의 초상화가 들어있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도 金玉均 兪吉濬을 비롯하여 개화기에 많은 사람들이 福澤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근대화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틀림없으나, 福澤은 대외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제국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청일전쟁에 있어서 日本의 침략전쟁을 지지하였고 또한 脫亞論을 주창하면서 아시아 민족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였다("脫亞論"인 즉, 日本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아시아를 이탈해야만 된다고 주장하였다).

내가 福澤으로부터 감명을 받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짖던 慶應대학의 교훈인 獨立自尊의 정신과, 그가 끝끝내 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학문과 언론활동에만 전념했던 생활철학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慶應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하여 훨씬 리베랄했던 것도 설립자 福澤이 세운 전통이었는데 아무튼 나는 그의 학문적 태도와 일본사회를 근대화시킨 역할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역할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대학에서 배운 獨立自尊은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독립자존을 뜻하는 것이고, 리베랄이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의미하고, 福澤이 일본의 근대화에 학문과 교육,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기여한 것처럼 나도 우리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헌실한 것이라는 정신을 배양해 주었다."

金俊燁선생의 福澤觀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거의 저서 '帳合之法'[5]은 西洋式 부기를 일본에 처음 소개한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福澤諭吉의 「帳合之法」은 단순히 상공업경영에 적용하는 부기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라기 보다는 근대기업가정신을 고무하기 위한 저서이다. 기업가의 정신은 Max Weber와 Sornbart가 지적한 바와 같이 「複式簿記」에 의해 상징된다고 할 수 있다. 福澤諭吉의 「帳合之法」은 새로운 企業家精神, 資本主義의 애토스(ethos)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黑澤淸은 주장하고 있다.

4.2.2 福澤諭吉의 會計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福澤諭吉은 근대 일본문화형성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한 선구자이다. 福澤諭吉의 3大저서인 「學問의 勸誘」, 「西洋事情」, 「文明論의 槪略」은 늘리 알려졌으나, 「帳合之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帳合之法」은 「學問의 勸誘」와 동시·병행적으로 출판되었는데, 양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帳合之法」의 역사적 역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學問의 勸誘」는 德川이래 일본문화 파라다임의 교체를 선언하는 것이다. 학문의 권유와 「帳合之法」은 외견상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 사상

5) 日本 近代會計制度의 출발점은 1873년으로 보고 있다. 1872년 11월 15일에 大政官令 제34호로 國立銀行條例를 발표하고, 株式會社 第一國立銀行이 1973년 8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日本政府는 英國人 아란 찬트를 財務部紙幣局에 고용하고, 「銀行簿記法」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게 하는데, 그 책명은 「銀行簿記精法」이다. 찬트의 銀行簿記精法 과 비슷한 시기에 福澤諭吉은 "帳合之法"이라는 簿記書를 慶應義塾에서 출판한다. 「장합지법」은 初編 2卷과 後編 2卷으로 되어 있다. 初編 2卷은 1873년 6월 출간되었는데, 찬트의 저서보다 2개월 앞섰다.
初編은 單式簿記법이고, 複式簿記法은 찬트의 저서가 최초의 것이다. 複式簿記法을 내용으로한 「帳合之法」 後編 2卷은 1874년 7월에 출판되었다.

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帳合之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學問의 勸誘」를 살펴 보아야 한다(黑澤淸, p. 70.). 「學問의 勸誘」초편은 1871년 12월 그의 고향 中津에서 학교개설시 동향의 젊은 子弟에게 새로운 학문을 권유하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겨우 몇페이지에 불과한 小册子였다. 이것을 읽은 響黨의 知人들이 그 내용의 훌륭함을 알고, 이것을 活字版으로 출간할 것을 권유한다. 익년 慶應義塾 출판국에서 출판되게 된다. 「학문의 권유」 초편은 그 당시 일본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明治初期에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 책의 冒頭에 쓰인 「하늘은 사람의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의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名句는 새로운 문화제도의 근저를 이루는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권유」의 목적은 德川이래의 봉건적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식해방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近代法秩序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하고, 이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새로운 학문을 학습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문의 권유」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福澤은 「帳合之法」을 출판한다. 「帳合之法」 초편 2책은 학문의 권유 초편 출판 후 5개월 (1873년 6월), 「帳合之法」 제 2편 2책은 「학문의 권유」 제10편과 같은 해(1874년 6월)에 출판된다. 같은 저자가 같은 시기에 2개의 다른 저서를 세상에 내놓은 것에 대해, 거기에는 무엇인가 共通因子 또는 內面的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여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문의 권유」는 사상에 관한 書이고, 「帳合之法」은 簿記書이다. 이 두책에서 공통인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곤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帳合之法」은 단순히 부기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고, 「학문의 권유」와 동일한 정신에서 저술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帳合之法 은 사실 저서라기 보다는 번역서[6]이다. 福澤이 Bryant와 Stratton의 책을 번역하게 된 취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福澤諭吉, 1989, pp. 210~216.).

"…어떻든 모두 장사를 경멸하며, 장사를 학문으로 생각치 않는 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학자와 부자로 하여금 이 記帳法을 배우게 하면 비로소 서양실학의 실질적인 이유를 알아 학자도 스스로 자기의 명청함에 놀라고 부자도 스스로 자시의 비천하지 않음을 깨달아 함께

6) 「帳合之法」의 원서는 1871년 Bryant & Stratton이 저술한 미국상업학교 교과서인Common School Bookkeeping이다.

實學을 공부하여 학자도 부자가 되고 부자도 학자가 되어 천하경제의 면목을 더욱 새로이하여 전국의 힘을 키움이 어떨까?, 수백년동안 和漢의 학자 선생이 虛文空論에 빠져 實學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우매하게한 죄라고 할 수 있다. 실로 탄식해야 할 일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記帳法을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해서 평민의 자제를 교육하고, 그들은 배운 것을 집에 돌아가 부형에게 얘기하면 부형도 비로소 洋學의 실질됨을 알고 안심하고 그 자제를 학문의 길에 넣는 자가 점차로 많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자는 記帳法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학문의 착실한 증거를 보여서 널리 世人을 독서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번역취지의 일부를 보더라도 「帳合之法」은 단순 기장기술이 아니고, 「학문의 권유」에서 주장한 사상들을 실천하기 위한 實事求是的인 저서이다. 「학문의 권유」가 어떤 사상의 주장이라면, 「帳合之法」은 주장된 사상을 실제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手段을 제시한 저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記帳 또는 誠實記帳은 국민정신고양과 정의사회구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4.2.3 福澤諭吉 思想의 示唆

우리들은 흔히 19세기 일본은 성공적으로 開化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개화에 실패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원인이 일본의 국민성때문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들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기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경우를 보고 있다. 우리들은 일본이 성공적으로 개화한 원인들을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기본적인 요인들을 주도면밀히 분석하여 역시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아야 한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화기인 19세기나 20세기 말인 지금이나 우리 나라가 공통인자로 안고 있는 문제는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 朝鮮後期 稅政紊亂은 모든 부패의 기본이다. 즉 田政, 軍政 및 還穀의 문란은 극에 달하였다. 이 稅政문란의 원인이 붕당의 싸움, 勢道政治에 기인하였겠지만, 그 당시 대두된 實學思想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그 당시도 뜻있는 지도자들이 稅政紊亂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였슴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부정부패 방지와 세정문란을 방지

하지 못한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부정부패의 방지에 대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空虛한 高談唆論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짐작하고 남는다.

부정부패의 방지는 國民意識改革을 통해 가능하다는 지도적 인사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하겠는데 국민의식을 개혁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식개혁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이 의식을 개혁하고 싶어도 개혁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을 무시한 의견들은 실천가능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의식개혁은 평범한 개인의 멸망의 길잡이라는 일반시민들의 말을 자주 듣고 있다. 다시 말하면 中小企業人이 誠實記帳을 할려고 하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誠實記帳은 기업파멸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福澤諭吉과 같이 會計의 尊嚴性을 인식하는 知的, 精神的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4.3. 좀발트의 命題

Sombart는 그의 저서 Der Moderne Kapitalisms에서 복식부기의 역사적 경제적 의의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Sombart는 자본주의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경제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中野常男, p. 354.). "지휘권을 가진 경제주체로서 생산수단을 가진 소유자와 경제객체로서 無所有의 단순 노동자인 두개의 다른 인구집단이 시장을 통하여 결합하고, 영리원리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유통경제조직이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Sombart는 자본주의를 자급경제와 수공업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前資本主義的 경제체제와 명확히 구별하는 요소로서 두개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지도적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생산요인의 사회적 분화를 수반하는 두집단간의 대립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욕구충족원리와 전통주의를 대신하는 영리원리와 경제적 합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원리이다. 이들 두요소중에서 Sombart가 보다 중요시한 것으로 관념적 주관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후자인 경제원리 측

면이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주의는 ① 경제운영의 계획성, ② 협의의 합목적성, ③ 계산성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고유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Sombart는 初期 자본주의 시대의 始期를 15세기에서 16세기로 보고 있다. 그는 13세기 이태리의 상업 또는 14세기 프랑스와 이태리의 섬유공업 등에서 이미 자본주의적 색채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경제형태(경제적 경영 형태)인 자본주의적 기업이 대량 출현하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시기에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 자본주의가 급진적으로 진전된다고 보고 있다. 이 당시 자본주의가 급진전되는 요인으로 미국과 東인도航路의 발견, 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군대의 성립과 동시에 복식부기의 완성을 열거하고 있다(中野常男, p. 356.).

이상과 같이 Sombart는 복식부기가 여타 요인과 함께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출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복식부기는 모든 事象을 계량화하여 파악하는 計量化의 根本思考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리원리와 경제적 합리주의라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 내재하는 경제원리는 복식부기에 의해 보다 완전히 開化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Sombart는 복식부기가 경제조직에 있을지도 모르는 결함을 통찰할 수 있고, 미래의 활동을 예측하고, 닥쳐 올 활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확실한 신호를 제공한다고 보고, 복식부기는 경제운영의 합목적화와 계획화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Sombart는 자본주의적 기업이란 자본을 物的 기초로 하는 추상적 통일체라고 규정하고, 手工業자의 개인적 경영이나 同業組合인 前資本主義的 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 기업을 구별하는 특징은 영업의 완전독립이라고 말하고, 결국 자본주의적 기업의 기업가와 경제조직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업의 독립은 복식부기가 계산과 영업의 수행을 기업가의 인격에서 분리하고, 순수한 물적 견지의 입장에서 질서를 세우고, 동시에 계산을 객관화하고 기계화하여 계산절차를 기업가의 인격에 의한 恣意性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와 기업은 복식부기를 통하여 분리되고, 영업의 독립이라는 특징을 가진 자본주의적 기업의 성립에 복식부기의 창조적 협력은 무엇보다도 뚜렷하다고 하면서 Sombart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형성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中野常男, p. 357.).

이상과 같이 Sombart는 지극히 관념적 연역적인 논리에 의하여 자본주의, 특히 근대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역사를 분석하고, 복식부기도 또한 이와 같은 분석 중에서 자본주의의 성립과

불가분의 것, 말하자면 형식(Form)과 내용(Inhalt)의 관계에서 一如的으로 파악하고, 초기자본주의시대에 이루어진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中野常男, p. 358.).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복식부기의 역할을 이상과 같이 적극적·긍정적으로 평가한 견해는 Sombart만 아니고, 立論의 관점은 다르나 Max Weber와 Schumpeter의 所論에서도 볼 수 있다. Sombart의 명제(Thesis)에 대해 Yamey 등을 비롯한 비판적 견해도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中野常男, p. 358.).

영리원리와 경제적 합리주의가 기본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발전의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복식부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Sombart의 명제가 타당한지에 관한 논쟁을 떠나서 경제활동의 기록에 簿記, 특히 복식부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Sombart의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늘날 독일의 記錄文化중에서 記帳文化가 돋보이고 있는 것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독일의 철강재벌을 일으킨 Krupp家의 에센에 소재하는 Krupp박물관의 중심에 Krupp 1세대가 처음으로 사업활동을 할 때의 장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와 같이 帳簿를 중요시하는 독일 기업의 일반적 현상을 보고 Sombart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발전에 복식부기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나라의 기업인 중에서 사업초기의 장부를 비치하고 이것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삼고 있는 기업가가 있다는 것을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장부를 중요시 또는 경외하는 민족, 국민 또는 사회가 되어야 성실기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부정도 없는 투명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V. 會計의 社會的 機能과 社會關聯會計

5.1. 會計의 本質과 社會的 機能

회계의 본질에 대하여 ①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고, ② 회계는 정보시스템이며, ③ 회계는 서비스활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다(鄭基淑. 李重熙, pp. 4~6.).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면서, 情報시스템이고, 서비스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회계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언어의 역할, 정보시스템의 역할 및 서비스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회계의 본질은 인간이 문자와 숫자를 만들고, 경제행위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도 양이나 질면에서 다양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회계에 본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본질이 우리 나라 현실에서 현실사회와 결부시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회계의 본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회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병폐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덕불감증이 만연하게 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정의인지, 도덕인지 구별되지 않는 사회현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僞善的인 행위가 정당화되고, 도덕적인 사람은 지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사회의 불평불만자로 취급되기 쉽상이다.

이러한 만연된 병폐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각종의 처방이 나오고, 종교적 지도자와 지식인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개탄하면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는 병폐현상이 치유되기는 커녕, 사회에 불신풍조만 증폭하게 되고, 사회는 장래에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회전체가 정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기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일어난 갈등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자료가 없으면 해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객관적이고 정확히 계산된 자료 또는 정보가 없는 사회에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갈등현상이 증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은 "誠實記帳"이라는 말로 축약해도 좋을 것 같다.

誠實記帳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社會는 계속 발전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誠實記帳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장기술로 치부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다. 그래서 誠實記帳은 倫理 道德과는 별개 문제로 생각하고, 誠實記帳하지 않은 것에 대한 罪意識은 그 어느 누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 같다. 그리고 정부당국자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도 誠實記帳을 통한 사회갈등해소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誠實記帳은 회계에 전제되는 것이고, 誠實記帳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會計의 社會的 機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社會關聯會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나아가 현대회계학의 한 분야를 점유하고 있다. 물론 社會關聯會計도 誠實記帳과 관계가 있는 것이나, 최근에 주로 논의되고 있는 社會關聯會計는 歐·美·日에서 기업활동의 질적·양적변화에 따라 企業에 대한 요청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會計目的에도 변화가 있게 되며, 회계목적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公示內容도 확충되어야 할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關聯會計는 "企業의 社會關係를 把握開示하는 會計"를 말하는 것이다.

5.2. 會計의 社會化와 社會關聯會計

5.2.1. 會計目的의 變化와 社會關聯會計

"재무제표의 목적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잠재적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이에 관련된 불확실 요인을 예측하고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金善政. p. 39.)."라는 會計의 目的의 槪念定義는 ASOBAT의 그것과 별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美國 공인회계사회 스터디그룹의 보고서 「財務諸表의 目的」(1973)에서 사회적 환경관계를 고려한 재무제표의 목적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의 활동 중에서 확정되고 또한 설명 혹은 측정될 수 있는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金善政, p. 106.)."라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재무제표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 목적은 기업목표와 사회목표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며, 이것은 會計가 종래와 같이 私的 목표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즉 사회적 목표를 공시하려는 회계의 동향은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공시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에 따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확대에 따라 그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계인 社會關聯會計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 대두는 지극히 최근의 일이고, 그 전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山上達人, p. 6.).

그러나 앞으로 社會關聯會計의 발전은 분명한 것이며, 최근 각국에서 기업회계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社會關聯會計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회계의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아이디어의 실천은 1970년대에 이르러 주로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Bloom & Heyman, p. 167.). 일본도 1980년대에 와서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각국의 社會關聯會計의 발전상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5.2.2. 각국의 社會關聯會計

1) 美國

미국에 있어서 회계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1900년대 초에 진보적인 개혁주의자들과 社會會計學者들의 저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나, 이들의 노력이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권위있는 회계기관이나 조직들이 회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꾸준이 발표하였다. 이것들을 年代별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39년, AICPA의 會計節次委員會의 발표는 다음과 같다. "궁극적으로 회사회계에 의하서 표현되는 특별한 국면과 회사시스템은 생산된 결과에 달려있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Par. 1)"

② 1940년, Paton과 Littleton은 會社會計基準序說에서 회계의 사회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손익계산서와 결부되어 회계의 사회적 중요성은 명백한 것이다. 그 이유는 利益力에 관한 신뢰성있는 정보는 자금이 불필요한 산업에서 흘러나오게 하고, 필요한 산업으로 유입되게 하기 때문이다. (p. 3)"

③ 1973년, 미국 공인회계사회 스터디 그룹의 보고서 財務諸表의 目的 에서 발표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④ 1978년, 재무회계개념에 관한 제1보고서(기업 재무보고의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尹現東 . 李重熙, 1990). "회계목적은 불변의 것은 아니다. 회계목적은 재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법률적, 정치적 및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 vii)". "경영자들이 일반대중에게 유가증권을 판매할려고 하면, 경영자들은 자발적으로 잠재적 투자자와 일반대중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는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광범위하고 특

정한 책임을 부가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권위있는 기관과 조직들이 회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의 재무보고에는 별영향이 없었다. 미국의 기업들은 유럽의 기업과 비교해서 기업연차보고서에서 사회관련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loom & Heyman, p. 175.).

미국에서 사회관련회계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Linowes, Abt, Estes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山上達人, p. 6.).

Linowes에 의하면 사회관련회계는 "사회 경제활동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인간관계 환경관계 작품관계의 3영역에 대해 각각 개선과 손상을 대비시켜 순개선(손상)액을 산정하고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개선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흐름의 일면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선액의 파악이 그 특징이다. Abt의 사회관련회계는 사회에 대한 지분과 종업원 지역사회 일반대중에 대한 실질적 사회이익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특징을 흐름의 계산면에서 보면 기업의 제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사회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 공헌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Estes의 사회관련회계는 사회적 영향보고서의 작성에 의해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대응시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이익을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관련회계의 특징은 ① 제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② 기업의 사회적 공헌액을 파악하고, ③ 비용 편익분석법을 행하는 것이다.

2) 英國

영국의 사회관련회계는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사보고서」(Corporate Report)(1975년), 商工部의 토의자료 「회사보고서의 장래」(1977년)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이들 제안에서 종래 회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가가치계산서, 고용보고서, 대정부 화폐거래보고서, 외화거래보고서, 장래예측 보고서 및 기업목적보고서 등의 새로운 보고서의 공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사보고서」에서 제안된 것 외의 사회보고서(social reporting)를 공표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적자원, 사회책임의 공시, 공정한 기업실무, 에너지, 지역사회와의 개선, 환경문제 및 제품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기업의 사회적 항목의 공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ICI社의 보고서는 유명하다.

이 「회사보고서」의 제안을 둘러싸고 Morley, Allan, Nicholson, Cox, Wood 등의 견해들이 활발히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다. 영국 사회관련회계의 특징은 ① 제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② 기업의 이사보고서의 하나이고, ③ 서술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3) 獨逸

독일의 사회관련회계는 독일화학공업협회 경영경제위원연구회의 보고 「사회중의 기업」(1975)과 사회대차대조표 실무연구그룹의 제언인 「금일의 사회대차대조표」(1977년)가 획기적인 것이고, 이들의 공표 이후 독일 사회관련회계의 실천이 크게 발전되고 있다. 이 제언의 사회대차대조표는 ① 사회관련계산서, ② 창조가치계산서, ③ 사회관련보고서의 세가지로 이루어 진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本 論文에서는 생략하고, 다른 기회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들 보고와 제언의 발표를 계기로 Albach, Reichman, Lange, Weber 등의 견해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독일 사회관련회계를 요약하면 ① 보고대상에서 볼 때 종업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기업을 둘러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② 계산대상에서 볼 때 미국의 기업사회회계와 같은 사회적 비용 편익의 파악을 통한 사회적 공헌액의 계산이 아니라 기업에서 본 "지출=공헌상황"의 공시이며, ③ 파악형식에서 볼 때 회계형식과 서술형식의 병용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1977년에 「기업의 사회대차대조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대차대조표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대차대조표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과 독일의 것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다. 기업내의 요소를 노동과 자본의 두가지 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노동요소에 대해서는 사회대차대조표, 자본요소는 종래 연차결산서에 공표되는데, 이들은 "기업관리의 보고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 있어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대차대조표의 내용은 종업원의 지위, 종업원보수액, 노동조건, 안정성협정, 교육, 경영협의회, 생활조건 및 기업의 책임 등이 그 주축이다. 실제로 공표된 기업의 사례를 보아도 위의 내용과 거의 같고, 그 이외에도 연령구성과 예산배분액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대종업원관계를 보고하는 사회대차대조표의 공시가 실무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Roussel Uclat社의 것은 유명하다.

프랑스 사회관련회계의 특징은 그 내용면에서 종업원에 관한 사항을 종업원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회계보고서와는 거리가 먼 서술형식의 보고서이다.

5) 日本

1960年代에 들어와서 日本은 高度成長期를 맞이하게 되어 企業의 규모는 대규모화된다. 대규모화된 기업의 활동은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것만 아니고 부정적인 면도 현저히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企業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이와같은 환경에 따라 기업회계도 손익계산중심의 소위 손익사고의 한계를 인식하고 부가가치회계, 사회책임회계 및 기업사회회계 등으로 불려지는 새로운 회계영역을 연구대상으로 삼게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회계영역의 출현배경은 주로 企業觀의 변화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企業을 "社會中의 企業"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사회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영역에서도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회계사고를 확립할 필요가 있게 된다.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회계공시의 확충화는 필연적이다. 會計公示의 확충화는 사회관련정보의 공시와 직결되는 것이다. 회계정보의 공시는 제도적인 것과 비제도적인 것이 있다. 제도적으로 규정된 제도회계는 商法 計算書類規則(法務省令)과 證券去來法 財務諸表規則(大藏省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商法 제 281조 1항에서는 이사회로 하여금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영업보고서, ④ 이익처분안, ⑤ 부속명세서의 계산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24조 제1항에서 有價證券 發行會社에 대한 "有價證券報告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상의 제도회계상에서는 사회관련정보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편이며, 이점에서 日本은 歐美에 비해 사회관련정보공시의 제도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실제 공시에 있어서는 商法上의 영업보고서와 증권거래법상의 會社의 概況 등에 약간의 사회관련정보를 서술하고 있을 정도이다.

制度會計이외의 보고서로는 "事業報告書", "英文報告書", "弘報報告書" 등에서 각기업마다 나름대로의 사회관련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은 日本會計研究學會 스터디그룹 "會計情報公示의 현상 과제 전망(책임연구원 山上達人)"에 조사가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연구조사 항목은 ① 연구개발관계(신제품의 소개 등), ② 환경보호관계, ③ 지역사회관계(대소비자활동 등 포함), ④ 국제활동관계(해외영업부문 등 포함), ⑤ 종업원 관

관계의 다섯개 항목이다.

日本企業의 사회관련정보공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飯田修三, pp. 263~264.). 弘報用 報告書에서 각기업은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연구개발관계와 국제활동관계의 기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지역사회관계, 환경보호관계 및 종업원관계의 公示例는 거의 적은 편이다. 특히 종업원관계의 공시는 歐美와 다르다. 즉 대외적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社內誌이나 社內新聞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硏究의 動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에 「日本社會關聯學會」가 창설되고, 1989년 5월에 社會關聯會計硏究 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同學會는 1991년 4월에 「企業情報ディスクロージャー事典 - 社會關聯會計의 指針-」을 발간하여 사회관련회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는 山上達人과 "社會志向的 企業主體論"(society-oriented business entity theory)을 제시한 飯田修三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日本의 사회관련회계연구는 각양각색이며, 각종의 이론과 설들이 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Ⅵ. 社會正義 實現手段과 誠實記帳

6.1. 正義의 基本槪念

正義(justice)는 국어사전에서 바른도리라고 풀이하고 있다. 바른도리가 무엇인지 실감나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정의의 기본개념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 李在律교수의 정의의 기본개념을 그대로 옮겨 본다(李在律, pp. 6-8.).

"正義란 도덕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플라톤 및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德의 總體를 의미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용기, 절제, 자비 등의 덕성이 완전히 구현된 상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한 덕으로서의 정의'와 '덕의 일부로서 정의'를 구현한 이후 일반적으로 후자의 개념이 사용되게 되었다. 좁은 의미의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함(fairness)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정의는 개인적 정의와 사회정의로 구별되며, 전자는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덕목이며, 자신의 공정한 몫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후자는 사회의 제도나 정책에 관한 것이다. 롤즈(J. Rawls)가 정의를 사회제도의 덕목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정의는 주로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의란 왜 필요하며 정의의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가? 희소한 수단적 가치(예를들어 부, 소득, 권련, 기회 등등)의 분배를 둘러싸고 서로 상충하는 요구가 행해지고 각자가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바를 관찰하려고 하며 그들간에 공정한 조종이나 평형이 찾아져야 할 때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분배될 대상이 희소하지 않거나 구성원들이 이타적이어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정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윤리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최고의 덕은 자비, 사랑, 자기희생 등이지만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조직과 제도하에서 '정의는 사랑만큼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제도의 세계에서 정의롭지 않은 사랑은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毒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정의관이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이든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사회 다시 말하면 덕이 있는 사회와 공정함이 존재하는 사회는 인간이 갈망하는 사회임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인종간, 민족간, 국가간, 계층간의 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갈등이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갈등의 심화는 사회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는 발전하기 보다는 정체현상을 걷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갈등현상은 분배적 정의면에서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투쟁, 기업의 조세포탈, 관료들의 지대추구(rent seeking)[7] 및 기타 부당한 방법 등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정이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의 최고 정신적 지도자의 주장인 '내 탓이다.' 라든지 또는 어느 저항시인의 '우리 모두 고백하자' 라든지 양심선언적 주장들은 우리 사회의 平均人들이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주장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실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장과 선언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경제정의실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주장과 선언들도 중요하겠

7) 지대추구란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된 이전소득이나 독점권 그리고 각종의 이권이나 특혜 등을 획득하기 위해 비자금이나 상납금 또는 뇌물 등의 형태로 희소 자원을 지대의 원천지(소위 꿀단지)에 경쟁적으로 쏟아 붓는 개인의 이기적 행위로서 규정지울 수 있다(李城圭, 中央經濟新聞, 1993년 8월 31일.).

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의 정확한 기록이 다른 어떠한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記帳文化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들은 공허하기만 하고, 경제적 갈등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記錄文化'의 精粹인 '記帳文化'의 정착없이 경제적 정의의 실천을 위한 모든 수단들은 공허하고 실현성이 희박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기록'에 철저하지 못하고, 그리고 記錄物을 보존하는 습관도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특히 현대 경제생활 특히 기업활동을 기록 보관하는 '기장'의 방법인 簿記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것이고, 簿記는 기록문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6.2 記帳은 記錄文化의 精粹

기록하지 않고 경제, 사회 및 정치 등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을 이치에도 맞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다. 기록은 모든 문화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기록문화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결부시키면, 이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재산과 이익의 계산 기록과 결부되는 것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의 결과인 재산과 이익의 계산 기록의 방법으로 우리들은 부기라는 기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부기라는 기장법에서 기장의 기술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부정의 목적으로 경제활동의 사실을 성실히 기장하지 않는 의식에 문제가 있다. 특히 현대 국가에 있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성실히 기장하지 않는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와 사회는 반드시 발전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실기장[8]이라는 방법외의 부정 방지를 위한 다른 수단들은 모두 단편적이고, 이러한 수단들은 근본적으로 부정을 방지할 수 없다. "1993년 8월 12일에 발표된 금융실명제"도 부정방지와 세원포착의 하나의 방법일지는 몰라도, 부정방지와 세원포착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성실기장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와 가정의 재산과 소득의 기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경체체제의 주체인 기업, 정부 및 가정의 모든 경제활동의 성실기장은 지극히 근본적인 것이고 또 당연지사이다. 복식부기를 최초로 기록·정리한 Luca Paciolo는 복식부기의

8) 성실은 국어사전에서 "거짓이 없고 정성스러움"으로 풀이되고 있다. 성실기장이란 용어가 세법등의 법률에서 특별히 정의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성실기장이라 말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거짓이 없게 장부를 기록하고, 기록된 장부를 정성스럽게 보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가장 방법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기록정신을 강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성실가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유추해석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時의 明治開化期의 사상가이고 정신적 지도자인 福澤諭吉의 대표적 저서인「학문의 권유」의 실천적 입장에서 저술한「帳合之法」은 簿記의 존엄성을 인식하면서, 기업윤리의 기초는 성실기장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Sombart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발전에 복식부기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성실기장을 전제한 것이다.

투명한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다른 어떠한 처방보다도 성실기장이 근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우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 기업 및 가정이 성실기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야 하고, 입법부는 성실기장이 지켜지고 성실기장을 하면 유리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을 하여야 하고, 사법부도 판결에 있어서 최고의 윤리적 도덕적 지표로 성실기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 경제질서에 있어서 성실기장의 관습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임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때문에 성실기장의 관습화는 단시일 즉, 몇년만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世代에 걸친 대과업이라는 인식하에서 성실기장이 정착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시대를 지도하고 있는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들도 성실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기장을 도덕의 최고기준으로 인식하는 선언적 주장을 하고, 나아가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인정하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6.3. 正規의 簿記의 原則 의 再認識

6.3.1. 우리 나라 企業會計原則上의 正規의 簿記의 原則

성실기장은 윤리적인 면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역시 회계와 더욱 밀접히 관계가 있는 것이고, 성실기장은 회계상의 문제이다. 성실기장은 정확한 회계장부 보유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해석하여도 될 것이다. 정규의 부기의 원칙 또는 '정확한 회계장부 보유의 원칙'은 英國의 會社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Littleton은 기업의 비사회적 개인주의를 회계에 의해서 통제관리하려는 좋은 예는 英國會社法 중의 회계와 감사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하고, 英國會社法은

企業經理自由原則을 지키면서 회계에 관한 포괄규정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관한 진실한 공정표시 (또는 진실공정의 원칙), 정규의 부기의 제원칙 (정확한 회계장부 보유의 원칙),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구분의 원칙을 들고 있다.

진실공정의 원칙과 정규의 부기의 원칙은 대부분 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의 일반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1958년에 제정된 企業會計原則의 일반원칙의 첫째가 '진실성의 원칙'이고, 두번째가 '정규의 부기의 원칙'이었다. 진실성의 원칙은 "기업회계는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무상황에 관하여 진실한 보고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되고, 정규의 부기의 원칙은 "기업회계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진실성의 원칙과 정규의 부기의 원칙을 회계의 두가지 기능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회계의 정보제공기능에 관계되는 것이고, 후자는 회계의 이해조정기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원칙이다(安藤英義, p. 104.).

1976년에 기업회계원칙이 개정[9] 되면서 일반원칙 중에서 진실성의 원칙과 정규의 부기의 원칙이 삭제되고, 기업회계원칙의 前文에 이 두 원칙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에 대하여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정규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유용하고 진실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진실성의 원칙과 정규의 부기의 원칙이 일반원칙에서 前文의 회계목적으로 옮긴 것이 이 두가지의 원칙을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 수가 없으나, 개정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이 두 원칙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이후 기업회계원칙 개정시 이마저도 삭제되었다. 본논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성실기장은 정규의 부기의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정규의 부기의 원칙을 정확한 회계장부 보유의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회계장부는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만연된 회계관습으로 보아 正規의 簿記의 原則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회계를 연구하는 회계관계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나라 회계의 근원적인 병폐가 정확히 기록한 정부를 보관하지 않는 악습이 만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9) 우리 나라 기업회계원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것은 李正浩교수의 現代會計理論 (第三訂版) 170-194쪽을 참고할 수 있다.

서 제반 회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고, 회계규정의 제정시 정확히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른 어떠한 것 보다도 강조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회계규정 내에 그 내용을 포함해야만 한다. 정확히 기록된 장부를 보유하지 않는 관습 및 환경에서 회계의 본원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正規의 簿記의 原則은 우리 나라 기업회계원칙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6.3.2 正規의 簿記의 原則 의 吟味

1) 독일의 正規의 簿記의 원칙

독일은 정규의 부기의 원칙을 株式法과 商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1965년 株式法과 1985년 商法의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本田良巳, p. 31.).

1965년 주식법	1985년 주식법	
〈주식법 제149조 : 연도 결산서의 내용〉 (1) 연도 결산서는 정규의 부기의 제원칙에 일치하여야 한다. 그것은 명료하고 정연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평가규정의 틀내에서 회사의 재반 상황 및 수익상황에 대하여 가능한 한 확실한 概觀을 한다.	〈상법 제 243조 작성원칙〉 (1) 연도 결산서는 정규의 부기의 제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도 결산서는 명료하고 整然하여야 한다.	모든 상인
	〈상법 제 264조 작성의 의무〉 (1) 자본회사의 법정대리인은 연도 결산서(제 242조)를 확장하였는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일체를 이루는 부속명세서를 첨부하고,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본회사의 연도결산서는 정규의 부기의 제원칙을 준수하고, 자본회사의 재산, 재무 및 수익의 상황이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映像을 전달하여야 한다 …	자본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EC회계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1985년에 西獨 商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쟁점 중의 하나는 "진실 공정한 概觀(true and fair view)"을 商法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인데, 개정 상법에서는 진실 공정한 개관을 "실제상황에 일치하는 映像"으로 자본회사의 규정에 포함시켰다.

진실 공정한 개관은 신비스러운 단어(magic word)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진실 공정한 개관을 독일어로 표현한 것이 실제상황에 일치하는 영상이다(本田良巳, p. 33.). 정규의 부기의 제원칙은 실제상황에 일치하는 영상을 얻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日本의 正規의 簿記의 原則

日本의 기업회계원칙은 일반원칙 중에서 두번째를 "모든 거래는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정규의 부기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의 해석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飯野利夫, pp. 2-16~2-17.).

① 기록에 관한 원칙으로 해석하는 입장

정규의 부기의 원칙은 회계장부의 작성시 기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가) 망라성이 있는 기록-회계장부에 기록될 사실이 모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될 사실들이 누락되거나 가공의 것이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나) 검증성이 있는 기록-기록은 감사 등에 있어서 檢査證明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은 정당한 증거서류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이것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 질서성이 있는 기록-기록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질서있게 기록되어야 한다. 이 일정의 법칙은 회계장부에서 재무제표의 작성이 유도될 수 있는 조직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기록 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 따라서 회계전반에 관한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입장

정규의 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발생하는 簿外資産과 簿外負債라는 표현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규의 부기의 원칙은 회계장부의 작성에 있어서 단순한 기록에 관한 원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처리를 포함하는 원칙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정확한 회계장부의 작성시에 요청되는 기록은 회계상 정당하게 인정된 처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올바른 기록은 올바른 처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규의 부기의 원칙은 앞의 ①의 기록에 관한 원칙보다도 정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정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다소 애매한 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무엇이 정당한 처리라는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정규의 부기의 원칙을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든 이 원칙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 기업회계원칙은 우리 나라의 원칙보다 정규의 부기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중요시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6.4. 誠實記帳에 이르는 길

성실기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 실천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여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조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성실기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조세정책이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겠지만 세주증대에만 중점을 둔 조세정책으로는 투명한 경제사회를 이룰 수가 없다.

회계학자들은 성실기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장의 원리만으로 성실기장을 유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종류, 양태, 규모 등에 다른 기장법이 동일할 수 없다. 다양한 경제활동에 따른 기장법 또는 회계처리규칙들이 시의 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성실기장은 단순히 회계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성실기장은 경제활동에 있어 최고의 도덕규범이 되어야 하고, 정신적,종교적 지도자들이 성실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문화의 창달이라는 의미에서 대국민의식 계몽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성실기장이 국민의 도덕성 고양에 가장 기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성실기장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실기장 교육을 경제교육의 핵심으로 하는 국민경제교육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성실기장은 4-5년과 같은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몇 世代에 걸쳐서 꾸준히 노력하여 우리 후손들은 성실기장이 살아 움직이는 투명한 사회에서 살도록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온 국민적 차원에서 추진되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단시일내에 제거하려는 노력은 그 성취가 쉽지 않을 것이고, 부패구조가 용이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만 가중될 것이다. 이것은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각오로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서 제기된 성실기장에 이르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Ⅶ. 결 론

본 논문은 문헌자료에 의거하여 논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였다. 때문에 객관적 검정이 없다는 비평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회계정보가 근본적으로 성실기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기장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논문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비판의 일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회계전문인 뿐만 아니라 비회계전문가들이 성실기장에 의해 산출된 회계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리고 회계전문가들도 성실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성실기장을 강조하면서도 성실기장에 이르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 논문의 중요한 한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국내문헌〉

1. 金俊燁,「長征」, 나남, 1988.
2. 金善政譯,「財務諸表의 目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2.
3. 徐永洙, 申洪哲譯,「企業財務諸表의 기초가 되는 基本槪念과 會計原則」,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4. 愼侑根,「企業과 社會」, 經文社, 1991.
5. 我山社會福祉事業財團,「韓國資本主義와 經濟倫理」, 1993.
6. 尹根鎬,「韓國會計史硏究」, 韓國硏究院, 1984.
7. 尹現東 李重熙 共譯,「財務報告의 目的과 會計情報의 質的 屬性」, 1990.

8. 李正浩,「現代會計理論(第三訂版)」, 1992.
9. 李在律,「分配的 正義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2.
10. 鄭基淑 李重熙 共箸,「會計原理」, 經文社, 1992.
11. 鄭基淑 黃潤植 共譯,「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6.
12. 菅家茂 野田一夫,「企業と 社會」, 丸善, 1976.
13. 德谷昌勇,「企業社會會計論」, 白桃書房, 1986.
14. 明東孝二,「經營 經濟の 一般理論をトータルに理解しよう」, 時潮社, 1989.
15. 本田耕一,「パチョリ簿記論」, 現代書館, 1980.
16. 本田良己, "ドイツにおける「正規の 簿記の 諸原則」の 最近動向", 會計, 1993年 9月號
17. 山上達人,「社會關連會計の 展開」, 森山書店, 1986.
18. 飯野利夫,「財務會計論(改訂版)」, 同文館, 1986.
19. 飯田修三編著,「社會關連會計の 生成と 發展」, 白桃書房, 1992.
20. 飯田修三編著,「現代企業の 社會報告」, 白桃書房, 1988.
21. 安藤英義, "會計の 統計化 現象, 企業會計", 1993年 9月號.
22. 中央大學 企業經營硏究所編,「會計の 社會的 役割」, 中央大學出版部, 1982.
23. 中野常男,「會計理論生成史」, 中央經濟社, 1992.
24. 片野一郎,「リトルトン會計發達史」, 同文館, 1979.
25. 黑澤淸,「日本會計制度發達史」, 財經詳報社, 1990.
26. 黑澤淸 編,「會計と 社會」, 中央經濟社, 1973.
27. AICPA,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1973.
28. Bloom Robert and Heymann Hans, "The Concept of 'Social Accountability' In Accounting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6 Vol. 5.
29. Brown R. Gene and Kenneth S. Johnston, *Paciolo On Accounting,* McGraw-Hill, 1963.
30. Littleton A. C.,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Rusell & Russell,* 1966.

Augmentation of the Role of Accounting in Modern Society

ABSTRACT

Jung, Key Sook*

Even though the role of account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with the increase in the role of corporations in our society, it tends to be understated as being only a means to measuring corporate incomes and properties.

This paper studied, through a method of literature review, on the importance of the integrity of accounting records. Underlying the study is an assumption that the prevalence of dishonest accounting records in our society is a culprit of the undesirable fact that accounting approaches are tended to be neglected or ignored in resolving our social complications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corruption, trouble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and disputes on taxes.

The importance of faithful accounting records must be recognized from the perspective that recording honestly is not merely a matter of recording technique but a valuable source of our national ethos. The issue of how to promote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 integrity of accounting records is perceived as our national ethos must be taken up as the first topic in our social accounting and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task in formulating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tax laws, and a variety of policies for our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es.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College of Busuiness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